



한라산

채기선 초대전

한라산

채기선 초대전

장소 : 갤러리ED (한라일보사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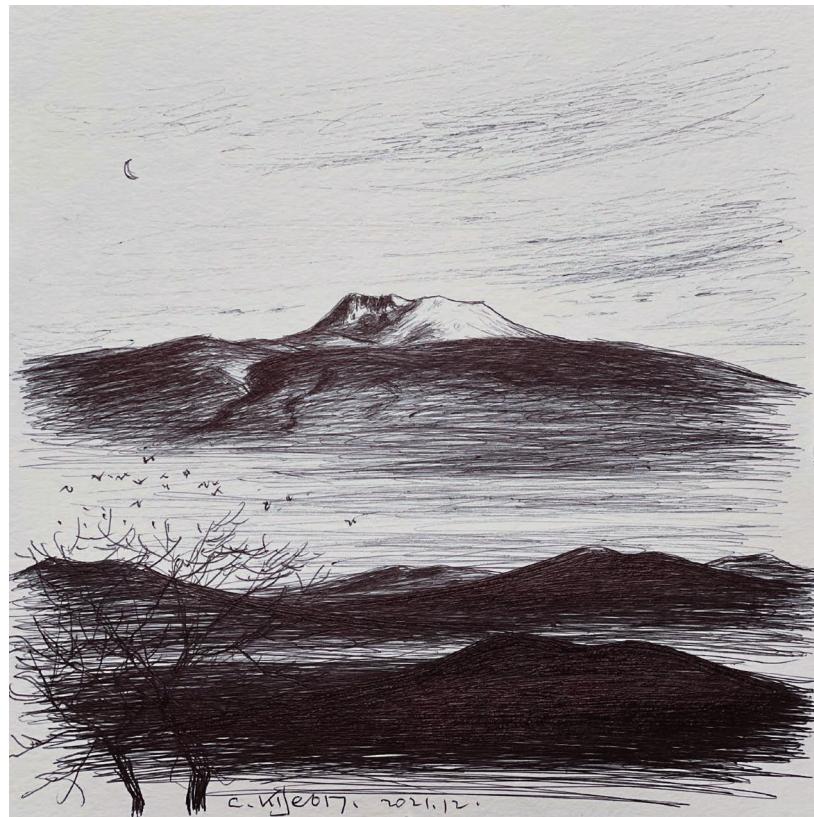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기간 : 2022. 10. 18(화)~11. 3(목)

오픈 : 10. 18(화) 오후 5시

주최 : 한라일보사

주관 : 한라일보사, 이룸갤러리



한라산 | 아르쉬지에 불펜 | 30x30cm

초대의 글

한라일보 갤러리 ED가 서양화가 채기선 작가 초대전을 마련하여 한라산의 모습을 다양한 시각으로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익히 알려졌듯이 한라산은 제주도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빛나는 세계적 명산입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한 한라산을 보면서 도민들은 마음의 평온과 위안을 얻고, 삶을 향유하여 왔습니다.

채기선 작가는 이러한 한라산을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구현함으로써 그 가치를 도내외에 널리 알리고, 작품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한라산' 그림으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최고상을 수상하고, 2018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라산' 그림이 국빈 선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해녀' 연작이나 '애견과 여인' 등 풍경과 인물화에도 뛰어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한라산 작가'로 알려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한라산'전에서 작가는 별이 내려앉은 백록담 작품 등 30여점을 새로이 선보입니다. 불타오르듯 강렬한 한라산을 담아내는가 하면 가슴 시리도록 청정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더욱 다채롭고 원숙한 화풍은 보는 이들에게 따뜻함과 여유로움, 또한 깊은 사색과 울림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수준 높은 작품 감상의 기회가 될 이번 채기선 작가의 '한라산' 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초대전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삶의 여유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일보 대표이사 | 김건일

인사말

제주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색채로 그려내는 채기선 선생님의 "한라산" 초대 개인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초의 아름다움의 극치 변화무쌍한 제주의 날씨에서 새벽의 오묘함과 하루의 태동, 불타는 노을의 열정, 냉철함이 극에 달한 백록담, 푸른바다가 품은 한라산의 장엄함은 제주 어머니의 마음이다.

때론 따스한 품으로, 때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때론 회초리를 드는 냉정함으로, 거친 파도와 바람에 겸손함으로, 제주인의 강인한 생활력으로, 열여덟 소녀의 곡선미 까지도 드러내는 부드러움으로 다가온다.

과거 추억을 소환하고 현재를 느끼며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채기선작가의 한라산전은 그리움 가득한 제주인의 안식처이다.

이룸갤러리관장 | 정담 이희숙



한라산1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53×33.3cm

채기선 작가의 ‘한라산’ 展에 대해

흔히 ‘한라산이 곧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라고들 한다. 한라산의 의미와 상징성을 이보다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 채기선 작가에게 있어서도 한라산은 그렇게 다가온다. 작가는 화업에 입문한 시절부터 한라산 그림을 즐겨 그렸고, 실경 위주의 제주 풍경과 해녀 연작에 천착했다. 40대 중반 무렵부터는 ‘애견과 여인’ 연작 등을 선보이면서 작가적 역량과 함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채기선 작가하면 ‘한라산’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지금도 작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한라산’이다. 예전의 한라산 그림은 화폭에 많은 것이 녹아들었다.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지고, 대지의 생명력이 움트고, 어머니 품처럼 넉넉한 한라산을 이야기했다. ‘한라산이 곧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림 한 폭이 곧 화산섬 제주이자, 섬을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양화 부문 최고상을 수상하면서 화단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 그림도 ‘한라산’이다. 2018년 4월 열린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채 작가의 ‘한라산’(150호) 작품이 국빈 선물로 선정되는 경사를 맞았다. 그에게는 자연스레 ‘한라산 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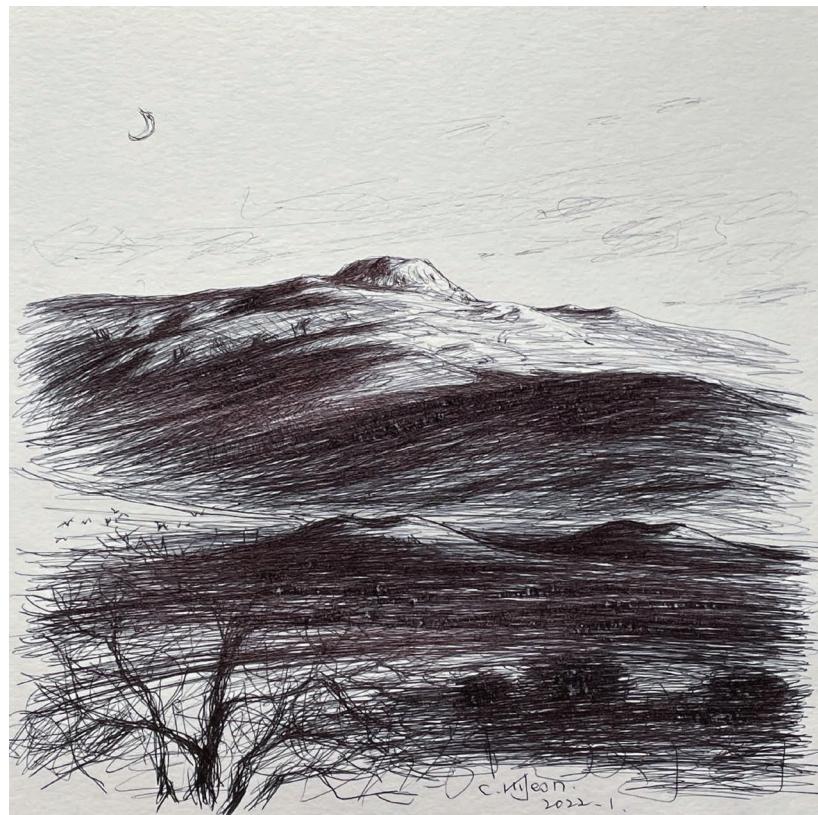
작가의 ‘한라산’ 화풍은 조금씩 변화를 거듭한다. 이는 2018년 한라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전 ‘마음의 풍경-한라산과 백두산’ 전 출품작들에서 보다 선명해진다. 이전에 비해 구도와 기법은 보다 단순해지고, 화폭은 푸른색, 짙은색 위주로 변했다. 수십 번 덧칠을 반복하면서 농도와 명암의 강약만으로 한라산을 이토록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청년작가 시절부터 2020년 4월 한라일보 갤러리ED 개관기념전을 거쳐 이번 ‘한라산’전(2022.10.18~11.3)에 이르기까지 연륜이 쌓이면서 농익은 그림은 깊은 사색과 신비함을 느끼게 하고, 더욱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한다.

일례로 이번 전시에서 그는 물이 들어찬 한라산 백록담 그림을 처음 선보인다. 주변의 산세는 생략한 채 백록담만 부각시켜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거기 푸른 물결 위에 일곱 개의 별자리 북두칠성을 표현해 냈다. 한라산은 말 그대로 은하수를 잡아당길 만큼 높은 산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 아닌가.

별은 밤하늘에만 떠있는 것이 아니다. 작가는 백록담 산정호수에, 밤하늘에 빛나는 북두칠성을 그려넣는 상상력을 발휘한다. 일곱 개의 별이 백록담 푸른 물결에 반짝인다. 한라산의 또 다른 표현이자 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쯤은 품고 있는 별을 담았다. 언제 어디서 봐도 가슴 뭉클하고 그리운 한라산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라산 전에는 밤바다를 가득 밝히는 어선들의 불빛(어화)이나, 거침없이 내달려 바다로 직하하는 정방폭포 등 다양한 '한라산' 그림을 선보인다. 우리가 늘상 가까이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라산의 다양한 변주를 화폭에서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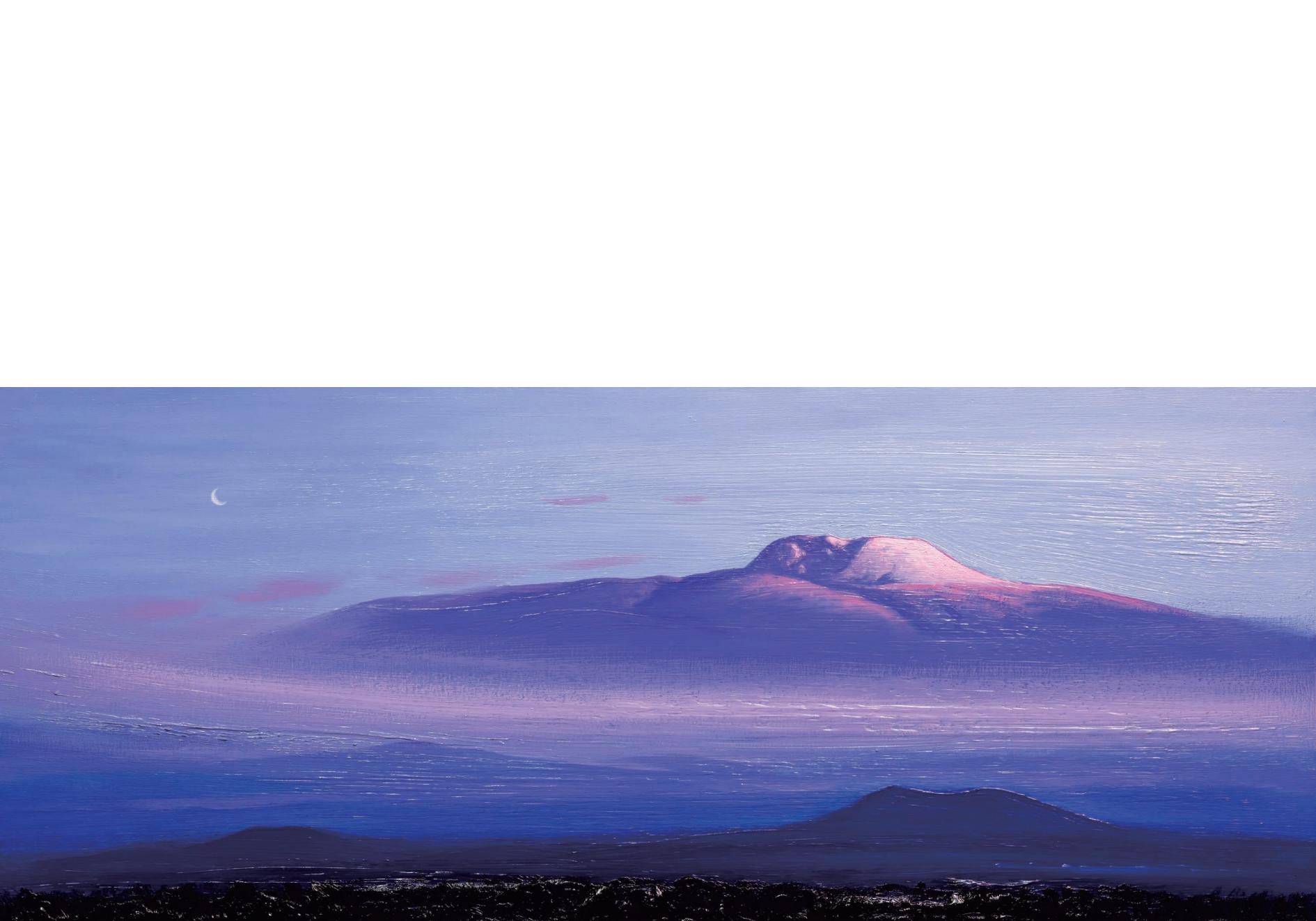
작가는 한라산의 많은 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버려야 채워지는 이치를 보여주는 것처럼 과감히 생략하고, 군더더기를 없앤 '한라산' 그림은 더욱 진한 감흥으로 다가온다. 색감은 오히려 더욱 풍성해지고 전해지는 울림은 진하다. 눈을 감아도 한라산 산세가 자연스레 떠오를 만큼 수없이 발품을 팔고, 스케치를 하면서 체화된 한라산이기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느낌이다. 작가는 아마도 흙날에는 점으로, 혹은 선만으로 한라산을 담아내고 있지는 않을까.



한라산 | 아르쉬지에 불펜 | 30x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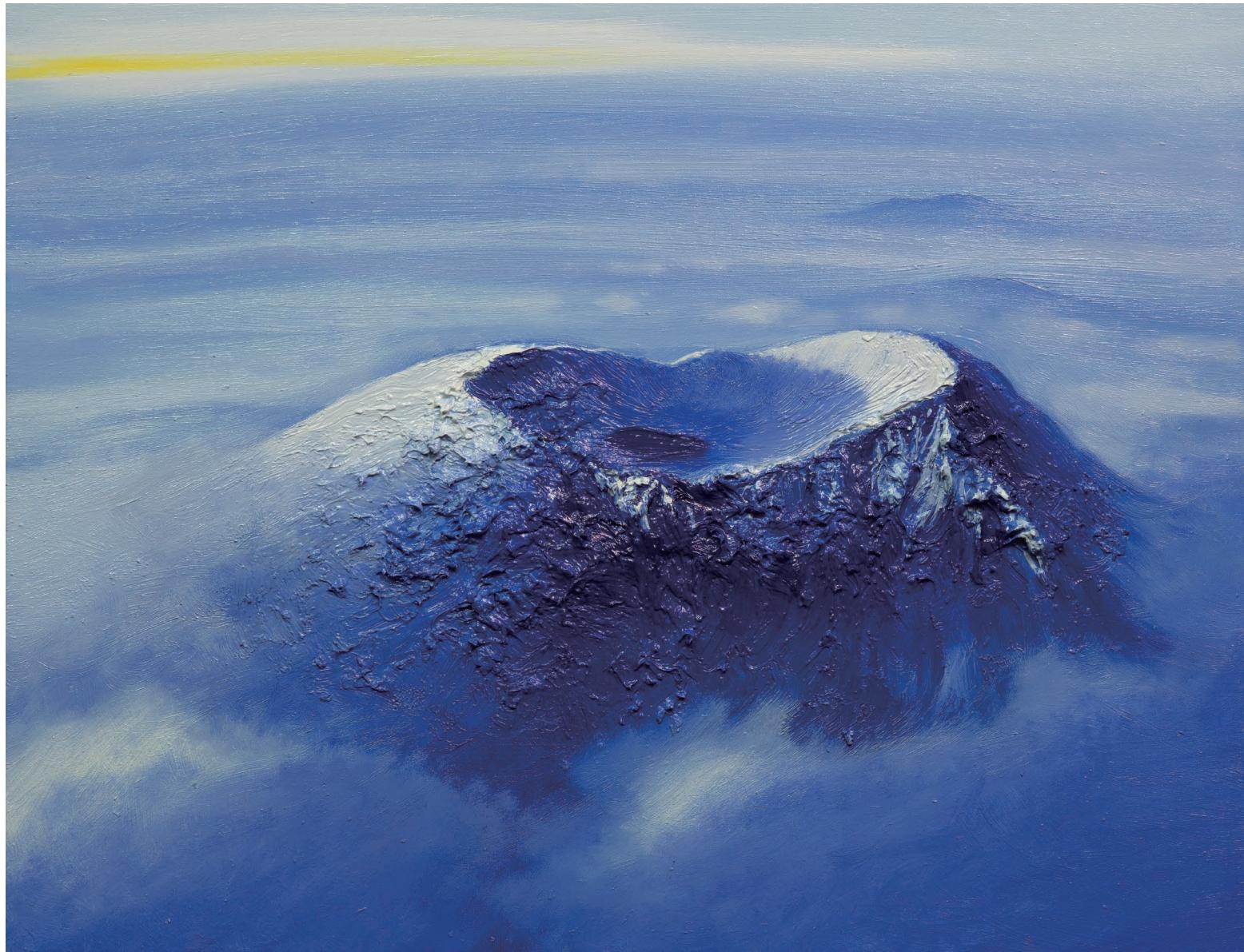
한라산2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259×162cm



한라산 3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100×40cm



한라산 4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45.5×33.3cm



한라산5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53×33.3cm

한라산 | 작가노트

1996년 2월 어느날 마주한 붉은 한라산은 나의 마음에 강하게 자리하여 작품의 중심소재가 되었다. 그로부터 장엄하고 신비롭고 숭고한 한라산을 표현하려 그리고 또 그려왔다.

2022년 오늘도 한라산을 그린다. 지금의 한라산 표현은 좀 더 내면의 감정을 끌어올린 것이다. 안개에 둘러싸인 듯 불분명한 하루하루를 살아오다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고 삶의 의미, 기쁨과 환희를 표현하고 싶어졌다. 한라산이 구름을 걷어내면서 당당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표현은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고 확인하고픈 나를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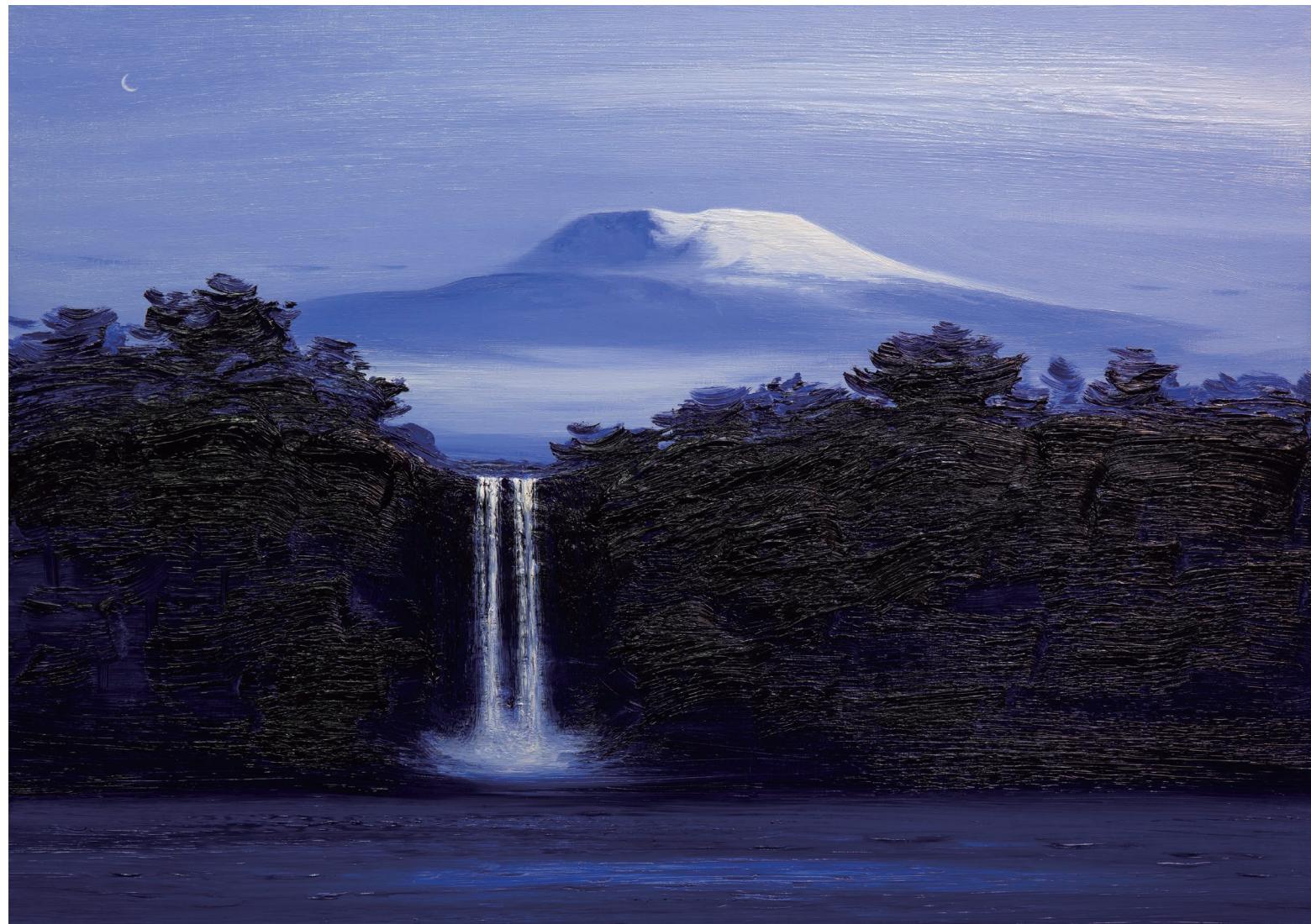
2022년의 어느날 한라산은 또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다.



한라산 6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72.7×50cm



한라산7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91×6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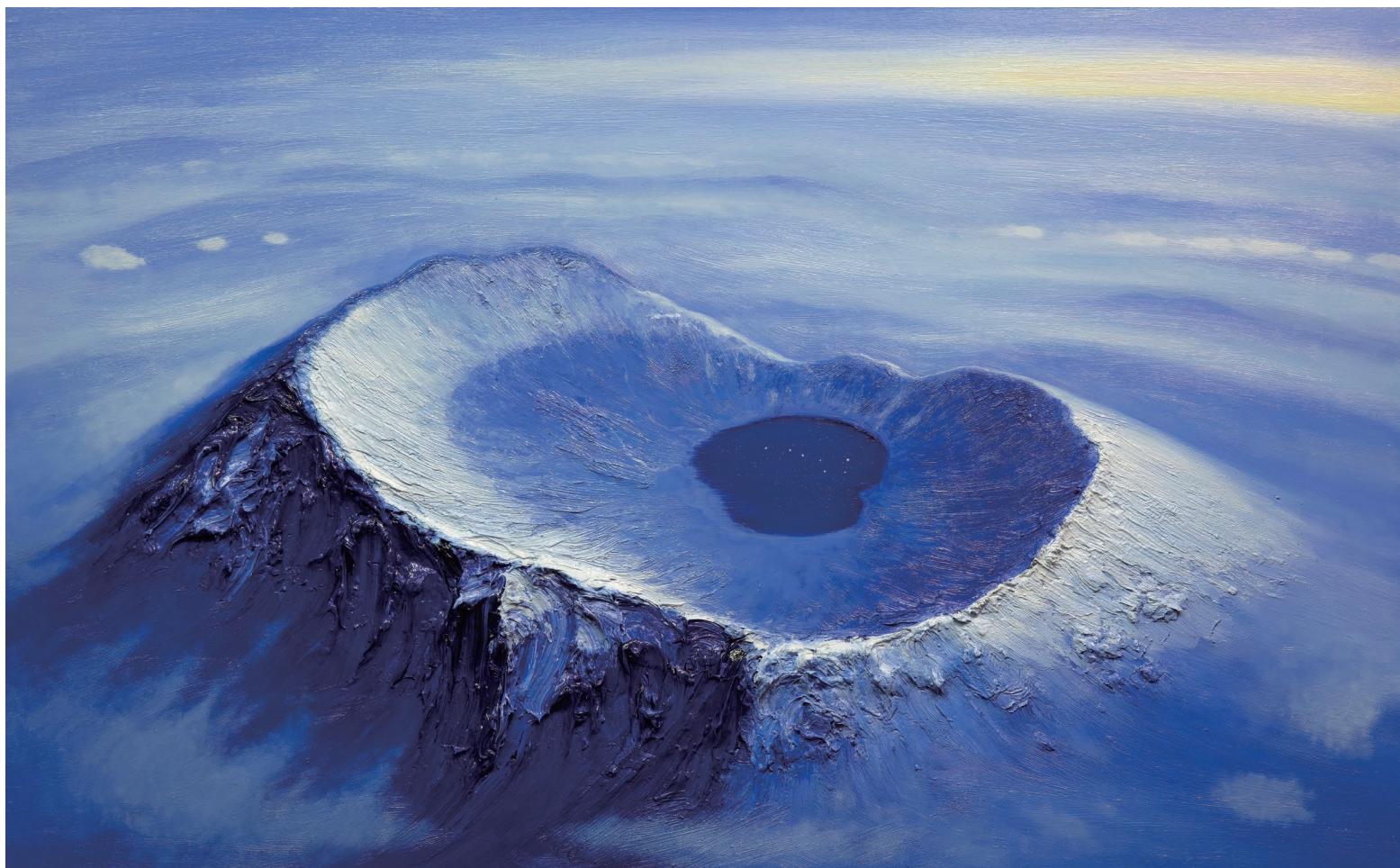
한라산 8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91×65.2cm



한라산9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91×6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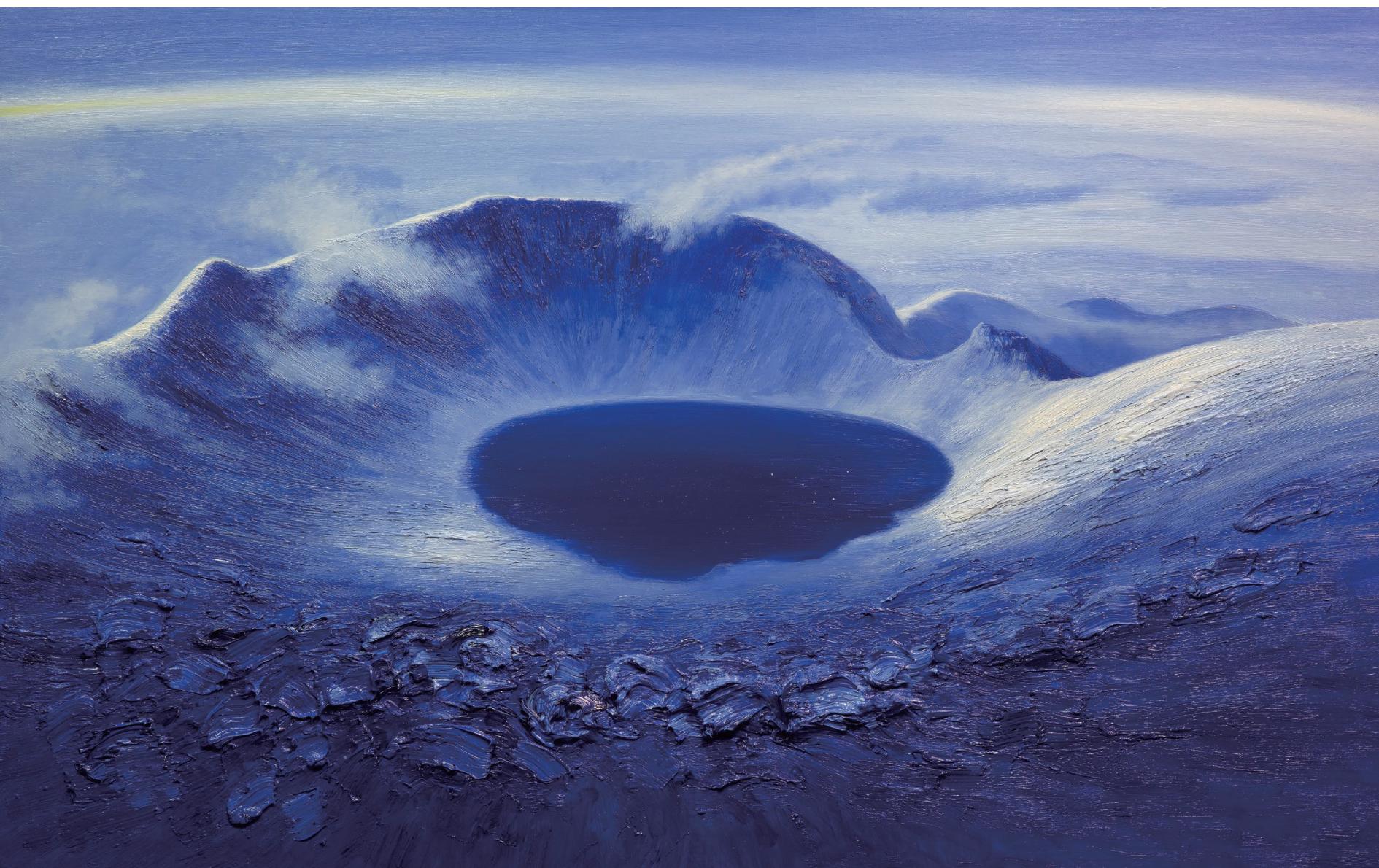
한라산10 | 캔버스에 유채 | Oil on Canvas | 116.8×60cm



한라산11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116.7×91cm



한리산 12 | 캔버스에 유채 | Oil on Canvas | 116.7×91cm



한라산13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116.7×9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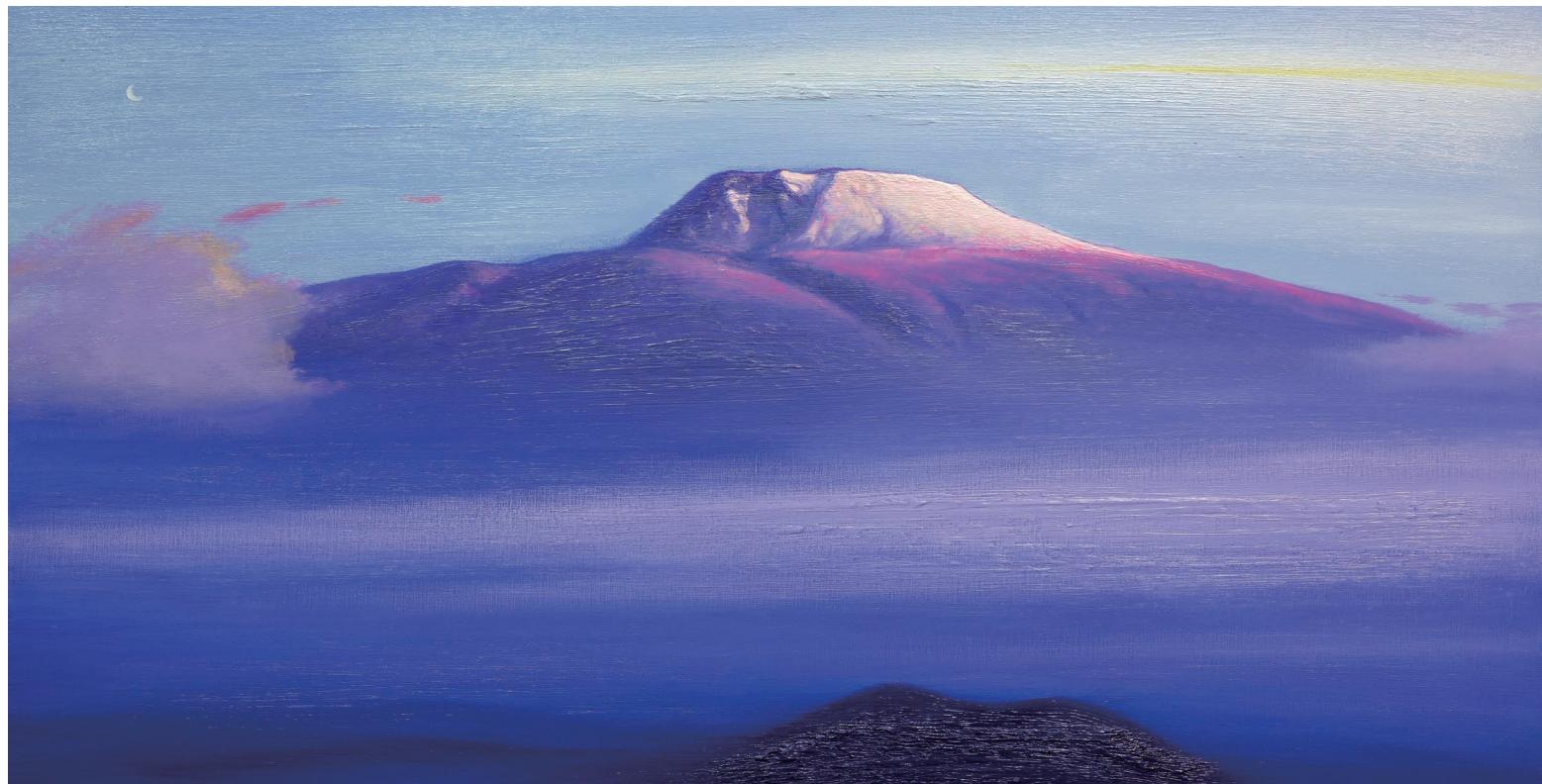
한라산14 | 캔버스에 유채 | Oil on Canvas | 116.8×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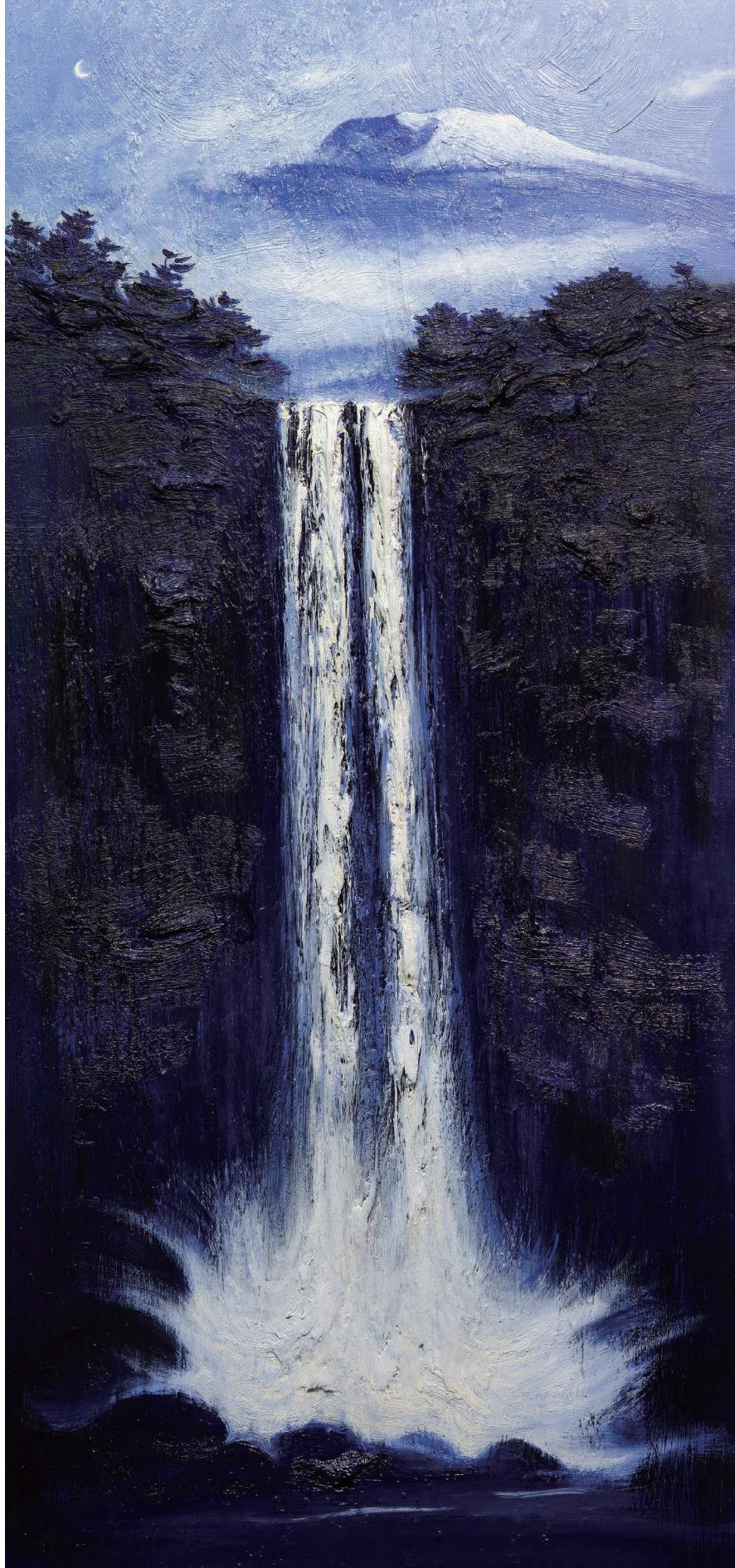
한라산15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116.8×60cm



한라산16 | 캔버스에 유채 | Oil on Canvas | 116.8×60cm



한라산17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116.8×60cm



한라산18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162×75cm



한라산 | 아르쉬지에 불펜 | 30x30cm



한라산19 | 캔버스에 유채 | Oil on Canvas | 116.8×60cm



한라산20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116.8×60cm



한라산 21 | 캔버스에 유채 | Oil on Canvas | 116.8×60cm



한라산 22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116.8×60cm



한라산 23 | 캔버스에 유채 | Oil on Canvas | 162×75cm



한라산 24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90.9×65.1cm



한라산 | 아르쉬지에 불펜 | 30x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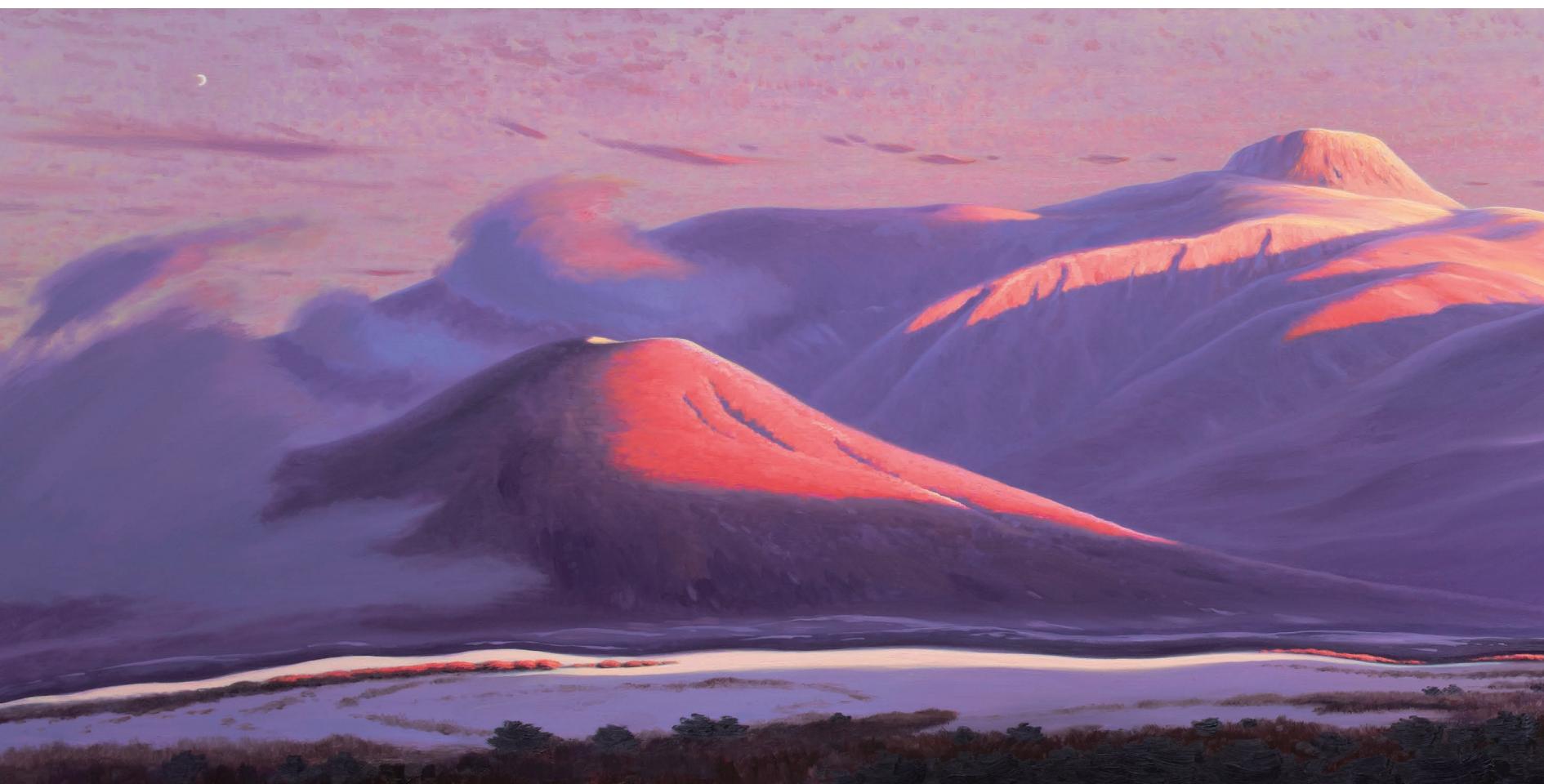
한라산 25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162×75cm



한라산 26 | 캔버스에 유채 | Oil on Canvas | 65.1×5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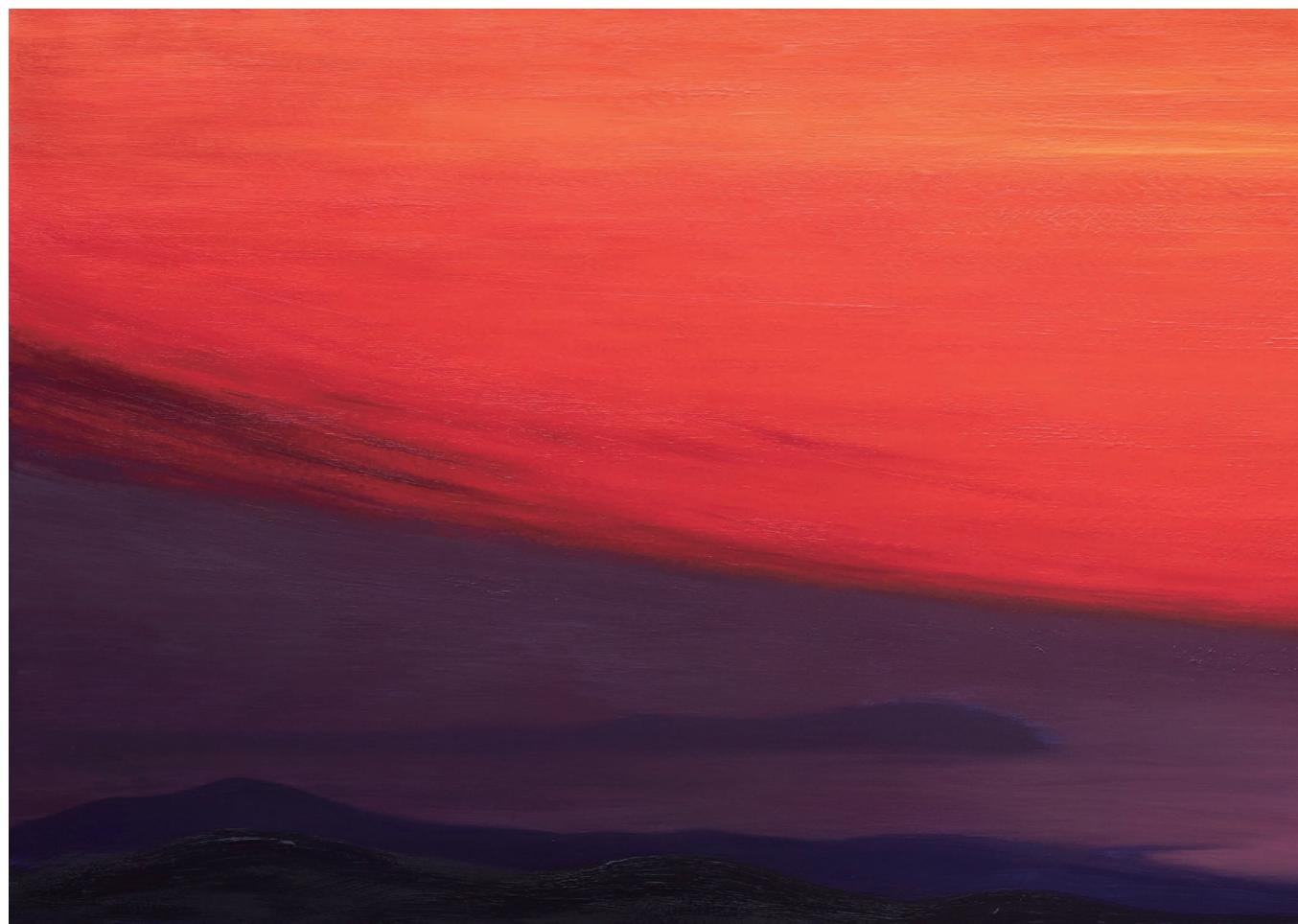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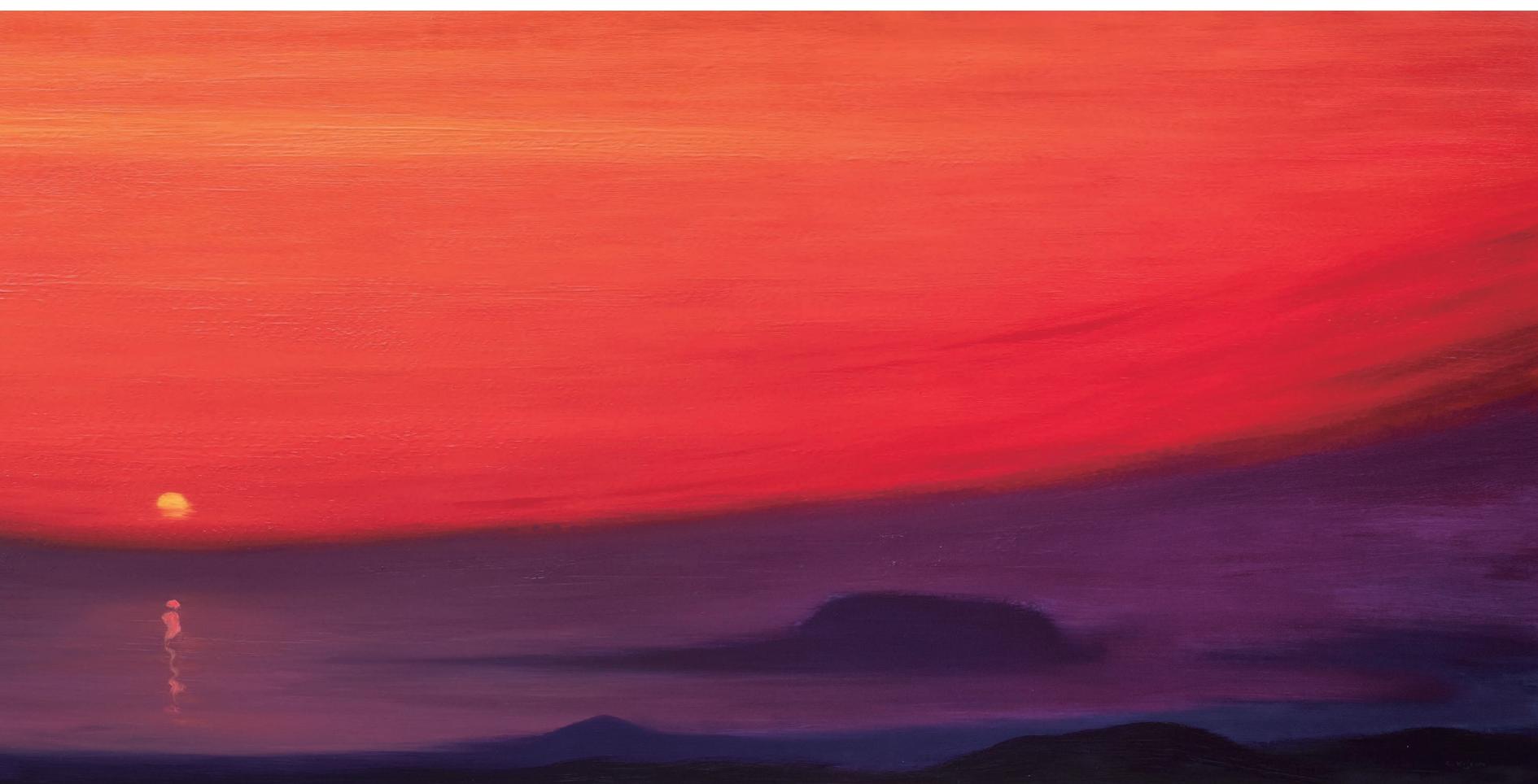
한라산27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65.1×53cm



한라산 28 | 캔버스에 유채 | Oil on Canvas | 500cm×120cm







붉은일출 |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 500cm×120cm



채기선 | 蔡基善, Chae Ki-seon

제주대학교, 경기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논문: 한라산 형상의 심상표현연구)

주 소 : 화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8-16 한서 301호

자택·화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419-2

갤러리: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63번지 Gallery 삼달

전 화: 010-6620-7141

이메일: chejuart9634@hanmail.net

수상

2002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양화 대상 '像-한라산' (국립현대미술관)
2018년 남북정상회담 국賓선물 선정(한라산 작품 150호)

개인전

- 2020 김만덕 기념관 5주년 특별초대개인전-포옹-한라산과 이어도를 꿈꾸다
(제주 김만덕 기념관)
- 2019 한라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초대전
마음의 풍경-한라산과 백두산(제주도 문예회관 전시실)
- 2018 글로드 아트홀 개관기념 초대전
- 2017 마음의 풍경-한라산과 일출봉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
- 2016 떠오르다 (가나아트스페이스)
- 2014 애견과 여인 (인사아트센터 1층 본전시장)
애견과 여인-SONG (뉴욕 첼시 COOHAUS ART GALLERY)
- 2011 인물화전-악기와여인 (인사아트센터)
마음의 풍경-따스한 바람불다 (제주 연갤러리)
제주경실련 20주년기획초대전
- 2009 Song (인사아트센터)
사랑-무한한 행복의 근원 (제주 연갤러리)
- 2007 한라산 영원의 빛 (제주갤러리모양 개관기념 초대개인전)
한라산 영원의 빛 (인사아트센터)
악기와 여인-봄을 부르는 소리초대전 (노원문화예술회관)
- 2006 인물화전-악기와 여인 (인사아트 센터)
- 2005 삶속에 피어나는 꽃그림전 (제주 세심재갤러리)
- 2004 인물화전-삶의 표정 (기당미술관, 문예회관)
- 2003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 기념전(문예회관)
- 2002 한라산전 (인사아트센터)
- 2000 제주의 자연전 (갤러리상)
- 1999 제주의 자연전 (문예회관)
- 1998 제주의 자연전 (문예회관)
- 1995 제주의 자연전 (단성갤러리)
제주의 자연전 (문예회관)

단체전 및 아트페어

- 바다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 N~DIMENSION 展 상상의 순간들 (양평군립 미술관)
- 한라산과 일출봉전 (제주도립 미술관 개관3주년 기획)
- 동시대 대표작가7인전 (서울미술관기획)
- KIAF 한국국제아트페어 (코엑스)
- 서울리빙디자인페어 2011 (코엑스)
- 화랑미술제 (예술의전당)
- soaf 서울오픈아트페어 (코엑스)
- 마니프 한국구상대제전 (예술의전당)
- 상하이아트페어 (중국)
- 홍콩아트페어 (홍콩코엑스)
- 기타 초대전 및 단체전 300여회 참가
- 47회 목우회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주요작품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한라의 봄, 100호)
- 수원지방법원 (한라산, 300호)
- 서울지법 고양지원 (한라산, 300호)
- 제주도 문화진흥원(범섬, 20호)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한라산, 1000호)
- 제주KCTV방송국 (일출봉, 200호)
- 한라병원(섬지코지의 아침, 1000호)
- 서울지방법원 (한라산, 300호, 150호)
- 한라일보사 (한라산, 300호)
- 기당미술관 (한라산 영원의 빛, 50호)
- KBS 제주방송총국 (한라산 영원의 빛, 500호)
- 제주도립미술관 (마음의 풍경-한라산, 300호)
- 제주국제공항 의전실 (100호 한라산)

한라산

채기선 초대전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처 갤러리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Tel. 064-750-2530

인쇄편집 디자인리더제주

©2022 한라일보 갤러리ED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저작권자의 서면 허가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재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form permission from the Jeju Museum of Art.

2022

Gallery ED

